

“아침 먹어 든든하고 저렴해서 행복해요”

시행 1년 전남대 '1000원 건강밥상' 먹어보니

밥·국 무한리필...1년간 4만9811명 이용

학생들 “가격 대비 맛도 만족...생활 패턴도 달라져”

여수캠퍼스로 확대 시행...서울대·부산대 벤치마킹

25일 오전 8시10분, 전남대 제1학생회관 학생식당은 이른 아침인데도 학생들로 북적였다. 빈 속을 달래고 첫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은 1000원짜리 학생증을 보여주고 식판에 흰 쌀밥을 듬뿍 담고 자리를 찾아갔다.

전남대 학생들의 경우 1000원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 한식과 양식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고 밥과 국은 맘껏 먹을 수 있다. 이날 메뉴는 진한 설렁탕에 깍두기, 상추무침, 반찬 가짓수가 너무 적은 듯 했지만 냉면 그릇만한 국그릇에 담긴 설렁탕과 맛은 일반 식당의 7000원짜리 못지 않았다.

식당에서 만난 이인재(24·신소재공학부 3년)씨는 “군대 전역 후 올해 복학을 했는데 1000원짜리 아침 식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정말 잘 나온다. 1000원을 내고 이만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우승(26·경영학부 2년)씨와 김서영(여·24·경영학부 4년)씨도 최근 이른 시각부터 학교를 찾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1000원짜리 건강밥상 애용자가 됐다.

이씨는 “처음에는 1000원짜리 메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최근 학생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챙기면서 정말 만족하게 됐다”며 “평소 안 먹던 아침도 챙기면서 속도 든든해지고, 생활 패턴에도 점차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전남대가 지난해 4월 1일 1000원짜리 ‘아침 건강밥상’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

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이 학업과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로 고달픈 학생들의 든든한 아침 식사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제안, 전국에서 처음 이뤄진 시도였다.

당시만해도 전남대 식당 운영업체는 수익성을 내세워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점심 한 끼값도 22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렸을 때다.

지 총장은 학생 대부분이 아침을 거르는 점을 감안, 식당측에 1000원을 학교가 부담하는 대신, 학생들이 1000원짜리 한 장만 내고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시작된 건강밥상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4월 한 달만 9900명이 식당을 찾는 등 인기가 높아지면서 학교측은 여수캠퍼스까지 확대했다. 컵라면 1개나 밥 한 공기, 삼각김밥 1개밖에 못사는 가격으로 사골떡국과 돈육 호박찌개, 한방영양닭죽, 불침저 볶음밥을 먹을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의 발길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전남대는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밥상 이용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4만9811명의 학생들이 아침을 챙겨 먹은 것으로 파

악했다. 여름·겨울방학 때 이용자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매월 7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용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올해도 21일 현재까지 1만4800명의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었다.

전남대의 건강 밥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대학들도 앞다퉀 도입하고 있다. 서울대가 지난해 6월부터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기 시작했고 부산대는 지난 18일부터 1000원짜리 건강 밥상을 운영 중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연간 1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지만 학생 반응이 좋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건강밥상을 운영하는 한편, 다른 대학도 동참할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25일 오전 전남대 제1학생회관 학생식당이 1000원에 아침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일반고서도 직업교육...농·산·어촌 거점 우수고 육성

교육부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들여다보니

자기주도 학습전형, 자율형 공립고 등 점진 확대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은 인구절벽 시대를 고려한 ‘고교 교육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특히 중장기 산업 수요에 맞춘 대학 구조조정 방안과 맞물려 산업계 고졸 인력 수요에 비해 직업계 고교 배출 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 직업교육 학생 비율을 늘리는 등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확대 조치의 경우 또다른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수는 67개교에 6만 3123명이지만 2018년 5만6291명→ 2020년 4만8461명 등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전남도교육청도 올해 2만2000명 수준의 중학교 졸업자가 2020년 1만 5000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2022년 24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직업계고 학생 정원은 그대로 유지해 고교 중 직업계고의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중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특성화고 학생 선발에서도 성적이 아닌 소질이나 적성, 취업 의지를 평가해 학생

을 뽑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도 2022년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고에서도 직업교육을 확대한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대학 진학을 사실상 포기한 학생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는 취지로, 전문대 교육과정을 일반고 학생에 맞춰 개편해 위탁교육을 하는 ‘일반고-전문대 연계 직업교육과정’이 추진된다.

이밖에 일반고지만 전국에서 우수 학생이 몰리며 대학입시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공주 한일고를 모델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 육성 계획도 추진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7 달뜨기 22:45
해질 19:14 달지기 08:30

우산 챙기세요

제주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11/25	보성	7/22
목포	11/21	순천	12/23
여수	13/20	영광	7/24
나주	7/25	진도	8/21
완도	11/22	전주	11/27
구례	8/25	군산	10/24
강진	8/22	남원	7/28
해남	7/22	홍산도	10/17
장성	7/25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남해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남부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남부(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북동~동	1.0~2.0	북동~동	1.5~2.5
남해	남부(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2.5

생활지수

주의	식중독
높음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출발

목표	미출발	출발
	04:34	09:44
	16:35	21:46
여수	11:15	05:15
	23:43	17:09

주간 날씨

27(수)	28(목)	29(금)	30(토)	5/1(일)	2(월)	3(화)
☁	☁	☀	☀	☀	☁	☁
13/16	11/20	9/23	10/25	11/24	11/24	14/22

“말길 곳 없는 아이 주민들이 돌봐드려요”

광주 남구 사직동 ‘주민 공동 육아 사랑방’ 개소

“말길 곳 없는 아이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돌봐드립니다.”

광주 남구는 28일부터 사직동 주민 휴게시설인 춘강정사랑방에 ‘주민 공동 육아 사랑방’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주민 공동육아 사랑방은 사직동주민자치위원회가 꾸러가는 돌봄교실로, 말밭이 부부 등 아이를 말길 곳이 마땅찮은 주민들의 아이를 돌보게 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마을 부녀회원 등 주민들이 돌아가며 10여명의 아이를 맡는 형식이다.

대성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춘강정

사랑방(30㎡)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은 이웃들의 보살핌 속에서 책을 읽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놀 수 있다. 날씨 좋은 날이면 춘강정 옆 광주천변으로 나들이도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양삼민 사직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사직동은 다른 마을과 달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말밭이 부부 등 아이를 말길 곳이 마땅찮은 주민들의 아이를 돌보게 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마을 부녀회원 등 주민들이 돌아가며 10여명의 아이를 맡는 형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범무보호복지공단 내일 화순서 ‘허그 나눔축제’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 광주전남지부는 27일 오전 10시 화순 한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16 허그(HUG)나눔축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허그나눔축제는 범무보호대상자 전문 지원기관인 범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전국 23개 지역의 자원봉사자 및 임직원이 참여하는 문화·체육 행사로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김희재 광주지방경찰청 감사장, 구중근 화순군수, 손금주 국회의원(국민의당) 당선인을 비롯해 공단 임직원, 전국보호위원, 자원봉사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4년 전통의 광주·전남 대표신문 光州日報
知識을 넘어 智慧를 공유합니다.
창사 64주년

광주일보 64년, 미래를 밝힐 '100년 신문'으로

전남도립대학 산학협약식

광주일보리더스아카데미
1·2기 친선골프대회

광주일보 창사 64주년을 축하합니다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회장 문병채 (주)국도정보기술단 대표) 원우 일동

광주일보는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KWANGJILBO LEADERS ACADEMY